

국 어

문 1. 어휘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 ① 웬 차가 이렇게 많아?
- ② 참 오랫동안에 눈이 내린다.
- ③ 택시 값 얼마 주고 내렸어?
- ④ 나는 오늘 30분 일찍 출근했어.

문 2. 훈민정음 중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ㄹ, ㅅ, ㅎ
- ③ ㄱ, ㄴ, ㅁ, ㅅ, ㅇ
- ④ ㄱ, ㄹ, ㅅ, ㅇ, ㅋ

문 3. 밑줄 친 어휘가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 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② 그 일은 걸잡아서 한 이틀쯤 걸릴 것 같다.
- ③ 김 선생님하고는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다.
- ④ 조용한 숲 속에 달빛만이 교교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문 4. ㉠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글쓰기 전략의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

보고서, 제안서와 같은 사내 업무 문서는 물론이고 제품 설명서나 안내문,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홍보 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문서는 보고를 받는 사람, 혹은 이를 읽을 독자가 있다.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써서 보고할 테니 알아서 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                    ㉡                    )

예컨대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가 경영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설득의 관점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가 실무자를 상대로 지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교육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셋째, (                    ㉢                    )

해결책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보고’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에 ‘무능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제출하는 것과도 같다. 상사는 어떠한 내용의 단순 보고만을 원하지 않는다.

- ① ㉠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라. - ㉡ 직급에 따라 설득 논리를 차별화하라. - ㉢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라.
- ② ㉠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라. - ㉡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라. - ㉢ 직급에 따라 설득 논리를 차별화하라.
- ③ ㉠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라. - ㉡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라. - ㉢ 직급에 따라 설득 논리를 차별화하라.
- ④ ㉠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라. - ㉡ 직급에 따라 설득 논리를 차별화하라. - ㉢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라.

문 5. 표준 발음법에 모두 맞지 않는 것은?

- ① 휘발유[휘발뉴], 서울역[서울녁]
- ② 몰상식[몰쌍식], 갈증[갈쑹]
- ③ 남존여비[남존녀비], 색연필[생년필]
- ④ 옷맵시[온맵씨], 뭇뭇이[몽목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6 ~ 문 7]

(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뒤편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대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야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 다시 넋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문 6. (가)와 (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전통적인 율격을 답습하고 있다.
- ③ (가)는 역설적 표현,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축하고 있다.
- ④ (가)는 독백체의 어조, (나)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 7.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지닌 태도나 정서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시적 화자는 풍수지탄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시적 화자는 감탄고토의 현실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시적 화자는 낯선 고향의 모습으로 인해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 ④ (나)의 시적 화자는 객지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고향의 따스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문 8. ‘먹다’의 의미를 (가) ~ (라)와 같이 정의할 때, 각각의 정의에 따르면 예로 부적절한 것은?

- (가) 벌레, 균 따위가 과 들어가거나 퍼지다.
- (나)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 (다)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 (라)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 ① (가): 옷에 좀이 먹어 못 입게 되었다.
- ② (나): 풀이 잘 먹어야 다림질하기가 좋다.
- ③ (다): 얼굴에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들뜬다.
- ④ (라): 딱딱한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

문 9.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가 오정희의 소설 중에서 압권으로 꼽히는 『중국인 거리』는 특유의 섬세한 심리묘사에 리얼리티까지 살아 있는 성장소설의 한 전형이다. 30년 전에 발표한 작품이지만 여전히 독자들과 사랑을 받고 있는 『중국인 거리』의 매혹은 열두 살 소녀의 눈에 비친 항구 도시의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국적 풍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소설 속의 ‘중국인 거리’는 지금도 ‘중국인 거리’로서 항구 도시 인천의 북성동과 송학동 일대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번듯한 관광지로서 사람들을 인천행 전철에 오르게 만드는 콘텐츠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중국인 거리’를 찾았을 때, 마침 그곳은 자장면이 들어온 지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준비로 한창이었다. 인천역 건너편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거리’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의 이방 지대, ‘중국인 거리’라기보다 차라리 중국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중국집과 만두 가게, 그리고 중국 기념품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길에서는 기름진 중국 음식 냄새들이 흘러나왔다. 온통 붉은빛의 간판들과 ‘짜알라 짜알라’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들의 홍수, 그곳은 바로 ‘중국인 거리’다.

그러나 소설 『중국인 거리』의 밑그림은 지금과 판판이다. 소설 속의 ‘나’는 학교가 과하고 나면 또래들과 화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조개탄을 훔쳐내어 신발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나온다.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으로 바꿔 먹기 위해서이다. 조개탄은 또 군고구마, 딱지, 사탕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조개탄은 ‘현금’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조개탄을 훔쳐내는 데 신명이 난 아이들은 사철 내내 검정 강아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 ① 독자가 특정한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점진적 변화나 단계적인 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지역의 모습을 묘사하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의미 있게 기술하고 있다.
- ④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계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문 10.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된 것은?

- ① 그 회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 ② 동치미는 이따가 입가심할 때나 먹고 곰국을 먼저 떠먹어야지.
- ③ 열대 지역과 한대 지역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은 틀린 점이 많다.
- ④ 물질적 피해는 돈으로 배상할 수 있다지만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 배상할 것인가?

문 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구나 방법이 그렇듯이, 통계 수치에도 함정이 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통계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구와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친구 5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봉이 화제가 되었다. 2천만 원이 4명, 7천만 원이 1명이었는데, 평균을 내면 3천만 원이다. 이 숫자에 대해 4명은 “나는 봉급이 왜 이렇게 적을까?”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평균값 3천만 원이 5명의 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물론 계산 과정에는 하자가 없지만, 평균을 집단의 대푯값으로 사용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평균은 극단적으로 아웃라이어(비정상적인 수치)에 민감하다. 집단 내에 아웃라이어가 하나만 있어도 평균이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1명의 연봉이 7천만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평균은 20억 원이 넘게 된다. 나머지 4명은 자신의 연봉이 평균치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슬퍼해야 할까? 연봉 100억 원인 사람이 아웃라이어이듯이 처음의 예에서 연봉 7천만 원인 사람도 아웃라이어인 것이다. 두드러진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최빈값이나 중앙값이 대푯값으로서 더 나올 수 있다.

- ① 평균은 집단을 대표하는 수치로서는 매우 부적당하다.
- ② 통계는 숫자 높음에 불과하므로 통계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 ③ 평균보다는 최빈값이나 중앙값이 대푯값으로서 더 적당하다.
- ④ 통계 수치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문 12.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기의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 말하기 목적은 달성되기 힘들다. 예컨대, 한 남학생은 여학생 반에서 바람 빠진 타이어를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타이어의 교환 따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한 여학생은 축구 선수가 많은 반에서 결혼 선물을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청중도 언젠가는 결혼 선물을 사겠지만, 그들은 선물을 달리 포장하는 데서 오는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배우는 데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한 청년은 청중들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청중은 이미 그러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운 뒤였다. 그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들면 왜 근육에 힘이 덜 드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즉, 그가 말하기 초점을 ( ) 하는 것으로 바꿨다면, 청중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었을 것이다.

- 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 ② 무거운 물건을 잘 들 수 있게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③ 무거운 물건이 근육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 ④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근육의 힘을 덜 들일 수 있을까

